

9/21(화) 데살로니가후서 묵상 (2)

데살로니가후서 1:5-10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당하는 의인의 환란이 결국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반전의 역사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는 신앙과 함께 고난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 초신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의인들을 왜 악인들로부터 지켜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4절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고 나서 5절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예고합니다(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운명은 장차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가진 ‘믿음과 인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구원과 영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갈 6: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처럼 심판의 날에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6-9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는 성경 곳곳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시 1:5-6,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단 12: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복음의 환란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나라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나라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두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두 정체성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나라의 정체성은 우선순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벧전 1: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이곳에 임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니다(눅 11: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 함께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면서 그의 백성들은 주의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10절,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단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기독교는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반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큰 반전은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장차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재림의 날에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복음으로 인한 환란이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의인의 고난을 위로하시고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인내 그리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주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장차 완성되실 하나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하이티를 위한 기도:** 올해는 대통령 암살과 더불어 매년 국가적 재난 위기 등등으로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한 하이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이티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하루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도록 중보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하자. 오늘은 교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중동 정안나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하자.